

그런 날 있잖아요? 터지는 칼로리에 나를 맡기고 싶은 그런 날..

그런 날엔 양재 수제버거 맛집, 파일버거에서!

샐러드에 포케, 건강식들이 대세인 요즘, 그래도 가끔씩은 칼로리 폭발하는 음식들을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매콤한 떡볶이, 알싸한 마라탕, 치즈범벅 느끼한 피자, 그리고 입안에서 육즙이 터지는 햄버거가 바로 그런 음식들이죠. 근데 다른 음식들은 그래도 눈!씻!고! 찾아보면 한군데정도씩은 갈만한 데가 있는데, 유독 햄버거 하나 먹기가 어려운 동네가 바로 양재였습니다. 버거킹, 맥도날드.. 그 흔한 햄버거 프랜차이즈도 없는 동네, 네.. 맞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회사가 있는 양재입니다.

그런 양재에 반가운 햄버거집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무려 수제버거를 파는 가게가 말이죠. 화창한 날씨에 식욕이 터지는 어느 봄날, 정말 배부르고 맛있는 한끼가 되어 줄 양재 수제버거 맛집, 파일버거를 소개합니다.



걸어서 가기엔 약간은 먼 거리긴 합니다. 양재 시민의 숲 역 근처까지 걸어가야 하니깐요. 회사에서는 빠른 걸음으로 대략 15~20분정도 걸리기 때문에 조금은 한가진 날(aka 팀장님 없는 날 ^^) 조금 일찍 나와서 발걸음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걸어가면서 햄버거 하나 먹자고 여기까지 나와야해? 싶은 마음이 살짝 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먹기 전 배고픔을 증폭시키고 먹고난 후 배부름을 소화(라고 쓰고 정신승리라고 읽는다) 시키기엔 딱 알맞은 거리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입구부터가 특이합니다. 한참을 걷다 양재답지 않은 통유리창과 철문을 만나다면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열려라 참깨는 마음 속으로만!) Push 버튼을 힙한 느낌으로 살짝 눌러주면 모던한 스타일의 매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매장의 크기 대비 좌석 배치가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덕분에 너무 북적대지 않게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간간히 걸려있는 그림들이 햄버거의 감성(?)을 더해주고, 통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여기가 뉴욕인가 양재인가 라는 착각을 1초정도 하게 만들어줍니다. 동료들과 2~3명씩 같이 와도 좋을 공간이지만, 혼자 와서 1인 좌석에 앉아 먹는 것도 왠지 느낌 있어 보이는 그런 공간입니다.



주문에는 다소 여유가 필요합니다. 항상 줄이 서있고, 키오스크가 1대밖에 없어 주문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잠시 폰을 열어 메뉴를 탐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햄버거 메뉴는 5개뿐이지만, 다양한 사이드 메뉴들이 있어 조합에 따라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정통 수제버거를 맛보고 싶다면 시그니처 버거 세트를 먹으면 되지만, 요즘엔 비주얼 때문인지(뒤에 소개! 커밍쑈) 치킨버거 세트도 많이들 드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자튀김의 종류가 다양한게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햄버거 세트의 핵심은 바로 감자튀김!). 치즈, 칠리, 멕시칸, 갈릭, 트리플파마산까지 다양한 소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당연히

Heat+로 가능합니다. 메뉴 선택후 모바일 결제를 선택하면 바코드를 찍을 수 있고, 햄버거 자체가 1인 메뉴에 키오스크이기 때문에 나눠서 결제해달라는 요청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단, Heat+에 연계된 계좌에 잔액이 충분이 있는지는 꼭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가 실패해서 난감해 하다가 얼떨결에 개인카드로 결제를 해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충전금액이 부족해서 었더라고요;(가난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 명 봤습니다...) 세트메뉴가 15,000원정도 하다 보니 초과결제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문 후 조리도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미국 CIA 요리학교 출신 셰프가 부지런히 요리를 하시지만, 한땀한 땀 정성이 담겨서 인지 대기시간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허기가 쳐 뒤로 넘어가겠다 하는 타이밍에(회사 출발 후 30분만에!) 대기번호가 불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수제버거가 나타납니다.

파일 시그니처 버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제버거 맛입니다. 부드러운 빵에 육즙 가득한 소고기 패티, 그리고 두꺼운 토마토와 베이컨까지 한움큼 베어 먹으면 입안 가득 진짜 햄버거의 맛이 느껴집니다. 대단히 특별하지는 않지만 맛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맛이죠. 세트로 주문한 부드러운 감자튀김과 시원한 콜라와 함께 먹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특이한 버거가 먹고 싶다면 치킨버거를 먹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름도 저세상 치킨버거입니다. 싸이버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거대한 치킨이 패티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치킨패티 위의 살짝 매콤한 할라피뇨가 치킨의 느끼함을 적절히 잡아줍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나도 거대한 양이지만 같이 간 동료가 대식가라면 한번쯤 도전해볼 만 한 햄버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이좋게 파일 시그니처 버거 하나 저세상 치킨버거 하나 시켜 드시라는 말입니다)



한입 베어 먹고, 칼로 잘라서 먹고 이리저리 얼굴 크기만한 햄버거를 공략하다 보니 어느새 빈점만 보입니다. 부른 배를 움켜지고 아이스 라떼 하나 사서 슬금슬금 걸어서 다시 사무실에 돌아오니 더할 나위 없는 금요일 하루가, 그렇게 행복하게 흘러가는 기분입니다.

Tip! 날씨 좋은 날, 포장해서 양재천 벤치에 앉아서 먹으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